

누가복음 7:18~35

18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19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20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21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22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23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24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26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27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네 앞서 준비할 것이다’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29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30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31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32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33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34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35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2. 다운타운 캠퍼스가 하루 속히 안정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 다시금 하나 되게 하소서
3. 미국과 한반도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주셔서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4. 어영선 어미선(인도), 유경민 유재한(아이티), 김수선 Barry(니카라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5.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신음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루 속히 사태가 해결되게 하소서